

농어촌공 원주, 반계저수지 '수질오염사고 대응 통합방제훈련' 실시

윤 김형석 기자 | 2026.06.19 15:53 승인

원주시·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유류 유출 가상 초기 대응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19일 원주시 반계저수지 일원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통합방제훈련'을 진행했다.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녹색경제신문 = 김형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농업용 저수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 방제훈련을 전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19일 원주시 반계저수지 일원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통합 방제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저수지 내 유류 유출 사고를 가정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오염원 차단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방제단을 비롯해 원주시청,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방제보트와 오일펜스, 흡착포 등 각종 전문 방제 장비를 실제 투입해 오염 확산 방지 및 유류 회수 절차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활동 증가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와 농업용수 관리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비상 대응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기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은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전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지역 수자원 확보와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석 기자